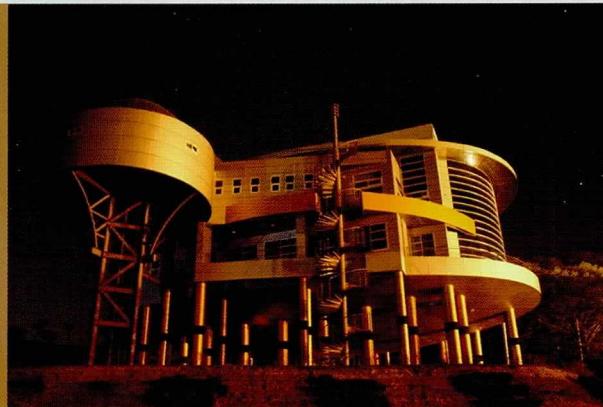


Public Observatory

대한민국의 Astronomy & Space Park 예천천문과학문화센터(예천 '별' 천문대)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영주시 방향으로 가는 28번 국도 변에 위치한 예천천문과학문화센터(예천 '별' 천문대)는 '별' 천문대와 고천문학 및 기타 천문학 관련 전시물이 있는 아외교육장, 숙박시설, 2007년에 공사가 시작 될 예천우주환경체험시설 등을 갖춘 국내 최초의 "Astronomy & Space Park(천문우주공원)"이라 할 수 있다.



누구나 쉽고, 빠르게 찾아갈 수 있는 최고의 접근성

국내의 대다수의 천문대들은 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물론 별을 잘 관측하기 위해서 산 정상에 천문대를 건립하는 것이 자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일반 관광객들이 굽이굽이 산도로를 올라가려면 여간 힘든 것 만은 사실이다. 천문대를 한두 번 다녀온 분들은 이런 의문점을 가질지도 모른다. “왜 일반 도로에서 가까운 천문대는 없을까? 굳이 산 정상에만 천문대를 지어야 하나?” 만약에 이와 같은 의문을 가지신 분이라면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릴 만한 천문대가 있다. 바로 예천천문과학문화센터(예천 '별' 천문대)이다. 예천천문과학문화센터는 예천읍내에서 영주시쪽으로 향하는 28번 국도를 따라 가다보면 국도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중앙고속도로 영주 IC에서 예천군 방향으로 10~15분 정도, 중부내륙 고속도로에서 문경세재 IC에서 예천군 방향으로 30분 정도 오면 쉽게 찾을 수 있다. 높은 언덕을 숨을 헐떡거리며 등반할 필요도 없으며, 산 고개길을 조심조심 운전해가며 찾아갈 필요도 없다. 그렇다고 산정상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 시야확보가 나쁜 것도 아니며, 주변의 도시로 인한 광해가 적어 하늘의 별도 5~6등급까지 관측할 수 있는 천혜의 관측조건을 가지고 있다.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예천천문과학문화센터는 개인이나 단체 모두 사전예약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아무리 성수기라도 한꺼번에 많은 관광객들을 받지 않고, 사전 예약된 한정된 인원(100명 내외)에 한해서 주간 및 야간 프로그램, 1박 2일 프로그램, 천문캠프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주간 프로그램은 태양 흑점 및 흥엄관측, 교자배포를 통한 교자해설 및 실습 프로그램 진행, 플라네타리움 관람, 강연 등이 있으며, 야간에는 관측실습을 관광객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별을 관측할 수 있다. 원한다면 밤 10시 이후 관측도 가능하다. 그렇다고 천문관련 프로그램만 있는 것이 아니다. 1박 2일 프로그램에서는 예천에 위치한 진호국제양궁장에서 양궁체험도 가능하며, 사전에 프로그램 문의 및 협의를 한다면 인근에 있는 예천온천에서 온천욕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식당도 마련되어 있어 숙식을 하는 관광객들은 식당을 이용할 수 있으며, 비비큐 시설을 이용한 고기파티도 가능하다. 관람과 관측, 체험학습 등 다른 시민천문대에서 느낄 수 없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예천천문과학문화센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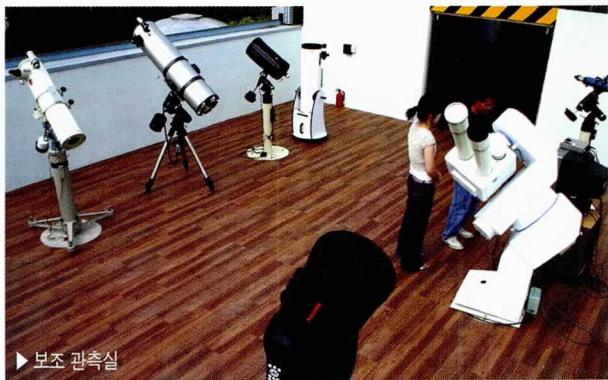
Astronomy & Space Park(천문우주공원)

예천천문과학문화센터는 국내에서 천문우주공원이라고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 예천 '별' 천문대, 천문대 건물 바로 옆에 위치한 전 연세대학교 교수의 사설천문대인 나일성 천문대, 2006년 11월에 새롭게 오픈한 아외교육장(약 1500여 평 규모의 천문과 우주를 주제로 한 전문테마공원으로 고천문학과 관련된 천문기기, 천문학과 관련된 각종 전시물들이 전시돼 있다. 누구나 무료 관람 가능), 2007년에 착공 할 계획인 예천우주환경체험시설 등 다양한 천문우주 관련 시설들이 갖춰져 있다. 특히, 예천우주환경체험시설에는 총 22억원의 예산을 들여 우주의 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들어놓을 예정인데 기변중력체험장치, 무한회전장치, 달 중력 체험시설 등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 그리고 향후 5~10년 내에 예천천문과학문화센터 주변을 우주과학 캠프로 꾸밀 예정으로 있어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천문우주공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인 홍보

예천천문과학문화센터는 아직 개관한지 2년밖에 되지 않아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경상북도 예천군도 주변의 관광지로 유명한 문경시와는 다르게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인지도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이 필요하다. 아마추어 천문인들에게 비수기 때 천문대 시설을 개방하거나 각 학교나 단체에 속한 천문관련 교육담당 선생님들을 위한 천문 지도자 연수 개최, 예천군내의 관광지 연계에만 국한되지 말고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인근 지역의 문경새재, 안동 하회마을, 부석사 등과 연계된 관광자원 개발 등을 한다면 경북지역에서 최고의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시설의 보완도 다소 필요할 듯 싶다. 현재 식당이 운영되고는 있으나 매점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 간단한 식음료수나 천문학 관련 기념품, 지역 특산품 등을 관광객들이 구매할 수가 없는데 이런 시설을 보완한다면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천문대 일반 현황

2004년 12월 27일 개관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덕풀리 91번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7,760m²(2,351평) | 건물 1,741m²(534평)

운영 : (재)예천천문과학문화센터



- 주요시설

주관측실 : 8m 원형동(내부 직경 10m), 508mm(20인치) 미카게(Mikage) 반사망원경

보조관측실 : 8×9m 슬라이딩 둠, 각종 중소형 천체망원경 6종

천체투영실 : 8m 둠 스크린(내부 직경 10m), 디지털 플라네타리움, 최대 45명 동시 관람 가능

관측자 숙소 및 편의 시설 : 100여 명 인원 숙식 가능

- 입장료(일반 관람)

유아(3~5세) : 무료 | 아동(6~7세) : 5,000원

청소년(8세~19세) · 장애 · 경로 : 7,000원

성인 10,000원

유아 및 단체는 주간만 가능

신청방법 : 전화예약(평일 · 주말)

주말과 공휴일 예약 없이 이용 가능

- 입장료(1박 2일 프로그램)

1실(4인 기준) : 100,000원 (1인 추가 20,000원, 7세 미만 10,000원)

→ 태양관측, 야간관측, 플라네타리움, 양궁체험, 교재해설, 주방시설 이용 가능, 조식제공, 바비큐 시설 이용 가능

신청방법 : 1일전 18:00까지 전화예약(054-654-1710)

- 홈페이지 : <http://www.portsky.net>

● 연간 방문자 수(단위: 명 | 자료 제공 : 예천천문과학문화센터)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05년	2,083	1,206	727	679	2,086	1,193	2,577	3,526	743	1,390	2,256	466	18,932
2006년	1,895	1,035	823	780	1,435	2,350	2,519	4,444	1,432	1,834	-	-	18,547
평균	1,989	1,121	775	730	1,761	1,772	2,548	3,985	1,088	1,612	2,256	466	18,740